

The Logic Basic

5주차

비판 (예시세구반범)

- 예상되는 결과, 시의 적절성, 세분화, 구체화, 반례 찾기, 범위

The Logic

-> 5주차에서 배울 비판은 6주차의 논증과 그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논증은 글을 쓰는 사람의 주장의 설득력과 관련된 것인데 반해, 비판은 다른 사람의 주장의 설득력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판과 논증은 그 기준이 비슷합니다. 예상되는 결과, 시의 적절성, 세분화, 구체화, 반례 찾기, 범위가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기준들을 가지고 연습하다보면 시험장에선 글이 이렇게 분류하여 적지 않아도 쉽게 비판과 논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판 (예시세구반범)

The Logic

비판은 논증의 반대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글쓴이의 주장의 설득력을 판단하는 것이 비판이고, 글쓴이의 입장에서 자기주장의 설득력을 판단하는 것이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판과 논증은 비슷한 기준과 내용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두 가지 원칙	
1. 기준을 세워 비판하라.	
1) 예상되는 결과 2) 시의 적절성 3) 세분화 4) 구체화 5) 반례 찾기 6) 범위	
2. 주장보다는 근거를 우선적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고려하라. 주장은 근거라는 기둥으로 세워진 건축물이다. 기둥을 먼저 흔든다면 주장은 자연스레 붕괴될 것이다.	

[기준 연습하기]

1-1) 예상되는 결과	
-> 상대방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결과로써 비판	
주장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 효율이 다른 수단보다 높기에 확대되어야 한다.
평가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건에서 볼 수 있듯 원자력 발전은 사고 발생 시 그 위험성이 다른 수단보다 훨씬 높으므로 그 확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2) 시의 적절성	
-> 상대방의 주장이 이 시기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가지고서 비판	
주장	휘발유 자동차는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기에 보다 친환경적인 수소 자동차를 널리 보급해야한다.
평가	수소자동차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단계여서 그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당장 이를 널리 보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1-3) 세분화	
-> 상대방의 주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설득력이 약한 주장을 공략	
주장	①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권력이 된다. ②시간을 살 수 있으며, ③건강 또한 살 수 있다. ④그리고 다른 이를 굴복시킬 수도 있다.
평가	돈으로 모든 이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곤 한다.

1-4) 구체화 -> 상대방의 주장을 구체화한 후 비판	
주장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하는데,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다면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라는 일반적인 인과가 도출된다.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자 수준의 인과'라 하고,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하는데, '집단 수준의 인과'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을 지닌다.
평가	모든 일이 항상 인과관계에 따라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적 법칙과 우연적 요소에 따라서도 세상은 움직인다. A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과음과 폭식을 하여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였다면, B가 이미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병이 걸리기 전 회사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과연 스트레스가 병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때로는 우연적 요소에 의한 것일 수 있다.

1-5) 반례 찾기 -> 상대방의 주장의 완결성을 깨뜨릴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비판	
주장	사람이란 팔이 두 개, 다리가 두 개이며 직립하여 다니는 동물이다.
평가	갓난아이는 기어 다니는데, 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인가.

1-6) 범위 -> 상대방 주장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은 경우 이를 비판	
주장	조선인들의 특징은 편 가르기에 있다. 허구한 날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로 편을 가르며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며 분쟁을 일으킨다. 이는 반도라는 지리적 특성에 의한 것이다.
평가	조선의 봉당정치의 폐해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나 정치적 이합집산에 따라 편을 갈라 서로 대립하는 것은 비단 조선에서만 일어났던 현상이 아니라 어느 시기,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상이다.

2) 근거 우선 비판 -> 근거는 기둥, 주장은 그 기둥들로 세워진 건축물이다. 근거를 흔들면 건축물은 자연스레 붕괴된다.	
주장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어느 누구도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 내버려두진 않는다.
평가	자신의 신념 또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판단하여 개별사례를 일반화 시킨 것에 불과하다.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싸이코패스들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도 내버려둘 것이다.

[혼자서 해결하기 - 다음을 비판하시오]

1. 다음을 예상되는 결과로써 비판하라.	
주장	과도한 낙관성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므로 긍정적 작용을 한다.
평가	

2. 다음의 주장이 시의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판하라.	
주장	급식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한다.
평가	

3. 다음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비판하라.	
주장	세릴 홉우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녔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해 텍사스 최고인 텍사스 로스쿨에 지원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3.8점이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합격생 중에는 대학 성적은 물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의해 세릴 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된 것이었다.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릴처럼 백인이라도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유색인종이라고 하여 항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학문의 장이 되어야할 대학에서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켜 더 우수한 학생의 공부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대학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평가	

4. 다음의 주장을 구체화하여 비판하라.	
주장	성취감, 정의감, 유대관계로부터 파생되는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거나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복보다 훨씬 수준 높다.
평가	

5. 다음의 주장을 반례로써 비판하라.	
주장	물질적 풍요는 행복을 담보한다.
평가	

6. 다음의 주장이 그 범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라.	
주장	인간은 모두 이성으로써 자율적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인 간의 계약은 그 형식, 내용, 상대방 등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충분하다.
평가	

7. 다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비판하라.	
주장	청과 수교를 맺는 것은 우리를 보살펴준 명에 대한 배신이다. 명은 임진왜란 당시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국가적 의리만으로 정예부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왜구들을 무찌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평가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1. 다음을 예상되는 결과로써 비판하라.	
주장	과도한 낙관성이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므로 긍정적 작용을 한다.
평가	낙관적 사유가 그 정도를 지나치면,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낙관성으로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2. 다음의 주장이 시의적절하지 않음을 이유로 비판하라.	
주장	급식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여야한다.
평가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 무상급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깊이 공감하나, 현재 교육부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뿐더러 무상급식이 가져올 수 있는 급식의 질 저하 등의 폐해에 대한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면적 무상 급식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3. 다음의 주장을 세분화하여 비판하라.	
주장	세릴 흡우드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다녔다. 그 뒤 텍사스로 이사해 텍사스 최고인 텍사스 로스쿨에 지원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3.8점이고 입학시험도 그런대로 잘 보았는데 떨어지고 말았다. 합격생 중에는 대학 성적은 물론 입학시험 점수도 낮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들도 있었다. 그들은 소수집단 우대정책에 의해 세릴 보다 우선적으로 선발된 것이었다. 이는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세릴처럼 백인이란도 가난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유색인종이라고 하여 항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학문의 장이 되어야할 대학에서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켜 더 우수한 학생의 공부할 기회를 박탈한다면 이는 대학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평가	현실적으로 대학이 순수한 학문의 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을 위해 통과해야하는 관문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겐 당연히 정치적 논리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4. 다음의 주장을 구체화하여 비판하라.	
주장	성취감, 정의감, 유대관계로부터 파생되는 행복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배블리 먹거나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복보다 훨씬 수준 높다.
평가	사막에서 방황하여 이틀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여행자가 물을 찾아 마셔 자신의 생명을 지키게 되어 느낀 행복이 성취감으로부터 나오는 행복보다 수준 낮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다음의 주장을 반례로써 비판하라.	
주장	물질적 풍요는 행복을 담보한다.
평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빈곤한 나라들 중 하나이지만,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적 사전지식으로 반례를 들)

6. 다음의 주장이 그 범위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라.	
주장	인간은 모두 이성으로써 자율적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 그러므로 사인 간의 계약은 그 형식, 내용, 상대방 등에 있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해놓으면 충분하다.
평가	아직 이성적 판단이 힘든 미성년자나, 이성적 판단이 때때로 힘든 한정치산자, 그리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금치산자와 의사무능력자들에게는 자유계약의 원칙을 깨고서라도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7. 다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비판하라.	
주장	청과 수교를 맺는 것은 우리를 보살펴준 명에 대한 배신이다. 명은 임진왜란 당시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국가적 의리만으로 정예부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왜구들을 무찌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평가	명이 자국의 이익과 상관없이 군대를 파병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구의 목적은 조선을 병참기지화하여 명을 치려는 것이었고, 명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 또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국가일 뿐이다.

예제 1번

<가>에 소개된 진화 이론으로 <나>의 사례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고,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사례를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제시문 <가>

친족선택 이론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개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해밀튼 규칙은 친족선택이 가능해지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친족을 위한 행동은 그 행동을 하는 개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C)보다 그 행동으로부터 친족이 얻게 되는 이득(B)과 근친도(r)를 곱한 값(rB)이 더 커야만 진화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친족선택 이론은 동물 세계에서 종종 관찰되는 이타적 행동, 예를 들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동료들에게 포식자의 접근을 알리는 경고음을 내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동료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평가된다.

제시문 <나>

조류와 포유류 중에는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남아 부모가 어린 동생을 키우는 일을 돕는 종이 있다. 이는 둥지를 떠나 스스로 번식한 시기를 늦추는 대신 부모의 번식 성공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부모의 번식 성공과 무관한 상황에서도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머무는 현상이 종종 보고되었다. 이는 주로 생태학적 조건이 열악해서 둥지를 떠나 새로 보금자리를 지을 자리가 희소하거나 먹이를 얻을 수 있는 세력권이 좁은 상황 등에서 관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조류 종은 ‘떠돌이 전략’, 즉 개체가 이 둥지 저 둥지로 돌아다니며 도움을 여러 둥지에 분산시키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도 관찰되었다. 이 경우 개체가 방문하는 둥지 개수가 많아질수록 개체와 각 둥지에 살고 있는 새들 사이의 유전적 연관성의 평균값과 개체가 각 둥지에 제공하는 도움의 평균값은 줄어든다. 결국 ‘떠돌이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는 자신과 유전적 연관성이 높지 않은 개체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 ‘떠돌이 전략’을 활용하며 새 둥지를 만들지 않던 젊은 개체는 부모가 죽은 뒤 부모의 보금자리나 세력권을 물려받게 된다.

제시문 <다>

보일러가 나오는 훈훈한 집도 없고 변변한 방한복조차 없는 동물들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까 특히 극지방에 몰아치는 혹독한 추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다. 평균 2160m 두께의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 대륙은 연평균 기온이 영하 23℃이며 최대 영하 75℃까지 내려간다. 북극 역시 최대 영하 53℃까지 내려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극지방에는 먹이사슬에서 분해자인 세균부터 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동물에 이르기까지 균형 잡힌 생태계가 존재한다. 피가 응고될 만큼 혹독한 환경에서 이곳 생물들이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극지방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가는 펭귄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한다. 3겹으로 이루어진 방수 깃털과 ‘윈더네트’라는 특수혈관계를 가진 발바닥이 펭귄의 몸에 구비된 방한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펭귄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협동에 의존한다.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

데 추울 때는 한곳에 뺨뺨이 모여 칼바람을 견뎌낸다. 특히 약하고 어린 펭귄들은 무리의 중앙에 두어 함께 보호하고, 성체 펭귄들은 추위에 가장 정면으로 노출된 바깥 자리와 추위로부터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안쪽 자리를 서로 번갈아 서는 방식으로 모든 개체가 체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풀이 과정]

1. 비판의 대상 찾기

<가>에 소개된 진화 이론으로 <나>의 사례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고,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나>의 사례를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 <가>의 이론이 <나>의 사례를 완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술하라고 했으므로 <가>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나>는 <가>의 반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를 활용하여 <나>의 사례를 보다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가>를 비판한 이유를 보완하는 내용이 그 방안이 될 것이다.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1) 예상되는 결과 2) 시의 적절성 3) 세분화 4) 구체화	5) 반례 찾기 6) 범위
<p>1) 불완전한 연구결과가 퍼지는 정도</p> <p>2) 큰 문제되지 않음</p> <p>3) 주장을 세분화해야 할 만큼 주장이 복잡하지 않음</p> <p>4) 경고음으로 동료의 생존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근거까지 있으니 충분히 구체적</p>	<p>5), 6) 제시문 <가>의 내용은 친족관계에서만 희생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제시문 <나>와 <다>의 내용은 친족관계에 있지 않은 개체에게도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므로 제시문 <가>의 주장은 그 범위가 협소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며 <나>와 <다>는 <가>주장의 반례가 된다.</p>

3. 비판의 구체화

제시문 <가>의 친족선택 이론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개체는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희생해서라도 자신과 유전적으로 연관된 친척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행동을 하도록 진화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제시문 <나>에 의하면 조류와 포유류 중에는 다 자란 새끼가 자신이 태어난 보금자리에 남아 부모가 어린 동생을 키우는 일을 돕는 종이 있다. 그리고 그 예로 ‘떠돌이 전략’을 사용하는 개체는 자신과 유전적 연관성이 높지 않은 개체에게도 도움을 주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제시문 <다>는 펭귄들은 수천 마리가 집단을 이루어 사는데 추울 때는 한곳에 뺨뺨이 모여 칼바람을 견뎌낸다고 하며 친족관계가 없는 개체 간에도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 답안작성하기

<가>에 의하면 유전적 친밀도가 높은 개체들 사이에서는 한 개체가 다른 개체들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나>는 ‘떠돌이 전략’을 소개하며 특수한 환경에서는 유전적 친밀도가 높지 않은 개체들 간에도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는 협동이 일어나는 범위를 유전적 친밀도가 높은 친족관계로 한정하였는데, <나>는 그것보다 넓은 범위인 개체군내에서도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가>로 <나>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는 극지방에 사는 펭귄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생활하며 그 과정에서 유전적 친밀도가 높지 않은 개체들 사이에서도 희생을 통한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협동이 일어난 것이므로 <가>의 친족선택 이론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전적 친밀도가 높지 않은 개체들 사이에서도 협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추가한다면 <나>의 사례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예제 2번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제시문 [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이화여대 2013 수시)

[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나무는 꽃을 피우고 가지를 뺏으며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가지와 뿌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땅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가지와 뿌리 사이를 끊어 놓으면 가지에 달린 꽃이나 잎은 시들 것이고, 잎이 시들면 뿌리 또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베를 짜는 일은 세로 방향의 날실[經]과 가로 방향의 씨실[緯]을 교직(交織)하는 일이다. 이때 날실은 베틀의 몸체에 고정되어 있고, 씨실은 북을 따라 날실 사이를 왕복 운동한다. 씨실은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야하지만 씨실의 활동이 아무리 눈부시다 하더라도 고정되어 있는 날실이 없으면 베를 짤 수 없다. 전통과 현대는 바로 뿌리와 가지처럼 유기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요, 날실과 씨실처럼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필수적 구성 요소이다. 어느 한 쪽이 없이는 다른 쪽도 온전하게 성립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전통의 기반을 튼튼하게 확보함으로써 빠른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고, 끝없이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건강하고 선진적인 현대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 기술 문명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뿐 아니라, 그 기반인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나]

문화혁명 당시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보기에 공자 사상은 지배 구조를 합리화하고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자의 영향력은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난 후에도 지속되어 봉건 체제를 옹호해 왔고, 근대에 들어와서는 파시즘과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비판이었다. 문화혁명이 시작되자 마오쩌둥과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유교 문화를 공격하면서 낡은 생각, 낡은 문화, 낡은 전통, 낡은 관습 등 ‘네 가지의 낡은 과거[四舊]’를 철폐하자는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운동은 ‘낡은 것 대 새로운 것’이라는 대립 구도를 ‘부르주아 대 프롤레타리아’, ‘외국 문화 숭배주의 대 민족주의’로 확대하였다. 공자는 과거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사상은 자본주의와 외국 문물을 조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치부되었다. 혁명가들은 사원과 유적, 사당, 기념상, 경전 등 공자를 연상시키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낡고 부패한 체제를 극복하려 했다. 문화혁명 시기에 한 신문은 공자를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를 만든 장본인으로 비판했다. 효와 우애를 찬양한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노예제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신문은 마찬가지로 이유를 들어 공자의 교육 철학을 공격했는데, 공자의 사상은 맹자에 의해 더욱 반동적인 사상으로 발전되어 두뇌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었다고 폄하하였다. 공자 철학에서 강조해 온 절제와 침착의 미덕, 즉 ‘중용(中庸)’의 관념은 오랫동안 지배 귀족에 속하는 ‘군자’의 덕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존 질서를 합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중용’의 ‘중(中)’은 ‘예(禮)’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노예 사회의 질서

를 전제로 하며, ‘용(庸)’은 ‘지속성’이나 ‘변화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중용이라는 개념은 노예제도의 원칙을 영구불변의 보편적인 질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문화혁명이 종료되면서 중국에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화혁명을 통해 사회적 가치관과 전통에 큰 타격을 입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층은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 이전의 혼란을 바로잡고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목표는 문화혁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도덕적 질서가 강화되어야 했다. 공자에 대한 재해석도 이런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문화혁명 당시의 공자가 미숙한 공산주의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이용되었다면, 혁명 이후의 공자는 더 포괄적이고 야심찬 목적을 위해 봉사해야만 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서 뒤처지고 있는 중국 사회에 권위를 부여하고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공자의 사당을 복원하고 공자에 대한 비판자들을 처벌하였다. 학자들은 공자의 사상이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이전의 해석이 부당하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예’의 덕목도 조화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풀이 과정]

1. 비판의 대상 찾기
제시문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에 대한 제시문 [가]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 볼 것도 없이 [가]가 비판의 대상이 되며 [나]가 그 비판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비판의 포커스는 ‘전통’에 맞춰져야 한다.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2) 시의 적절성 3) 세분화 6) 범위	1) 예상되는 결과 4) 구체화 5) 반례 찾기
2) 크게 문제되지 않음 3) 전통과 현대는 상호보완적이라는 하나의 주장이고 세분화하여 비판할 필요성 없음 6) 범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의 문제	1) 전통과 현대가 상호보완적인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정치적 계산에 휘말릴 수 있다. 4), 5) 공자와 유교에 대한 해석이 엇갈렸던 구체적 반례가 [나]에 나옴

3. 비판의 구체화
[가]에 의하면 전통과 현대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필수 구성 요소이며,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그렇기에 [가]는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통에서 생명력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빠른 변화 속에서 현재가 안정되고 난제도 풀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에 의하면 전통은 현재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이용되고 재해석된다. 문화혁명 당시 미숙한 공산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공자는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문화혁명이

종료되고 정치적 안정이 중국 정부의 목표가 되자 도덕질서의 회복을 위해 공자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이 시작됐다. 따라서 [나]는 전통을 현대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재해석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가]는 [나]에 의할 때 전통과 현재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전통과 현재의 관계는 [가]가 주장한 것처럼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나]의 내용으로 보면, 전통은 현재 상황의 필요에 맞춰 해석된다. 상황이 바뀌면 [나]의 공자처럼 완전히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의 필요성에 전통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다.

4. 답안작성하기

[나]는 전통이 현대의 위정자들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써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자의 사상은 문화혁명 당시에는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비판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나, 혁명이후에는 도덕적 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의 지향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가]는 전통과 현대는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전통은 현대의 문화가 융성할 수 있는 토양이 되며, 현대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에 의할 때 이는 옳지 않은 견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통은 이미 지나간 과거로서 현대인들의 입맛에 따라 재해석되고 이용될 뿐이며, 현재에서만 그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혼자서 해결하기 1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소녀’와 ‘신사’의 입장을 평가하시오. (이화여대 2014 모의 인문 1)

[가]

감정의 전염은 동시에 많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 영화관에서 관객들이 슬픈 장면을 보고 일제히 눈시울을 적시는 것과 같이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모임의 분위기가 점차 격앙되어 가는 경우와 같이 은밀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는 이 전염의 결과를 눈으로 감지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감정이 퍼지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감정적 전염은 뇌의 ‘하위 경로(low road)’라고 부를 수 있다. 하위 경로는 우리의 의식 아래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자동적으로 손쉽게 작동하는 회로를 말한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하위 경로를 통해 작동하는 거대한 신경망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잘생긴 사람에게 눈길이 가거나, 상대방의 말 속에 뭔가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위 경로 덕분이다. 반면 ‘상위 경로(high road)’는 신중하게 조직적으로 단계를 밟아 가면서 작동한다. 이것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상위 경로는 우리의 내적인 삶을 어느 정도 통제한다. 잘생긴 사람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거나 가시 돌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보기 좋게 대꾸하는 법을 찾아내고자 할 때 우리는 상위 경로를 이용한다. 하위 경로는 감정으로 얼룩져 있는 반면 상위 경로는 이성적이다. 하위 경로를 통해서만 가공되지 않은 감정이 오가고 상위 경로를 통해서만 꼼꼼한 이해가 오고 간다. 하위 경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곧바로 느끼게 해주고 상위 경로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하게 해 준다. 보통 하위 경로와 상위 경로는 서로 맞물려있는데, 우리의 사회적 삶은 이 두 가지 경로의 상호 작용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감정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조용히 옮겨간다. 그것은 아무도 의식하지 못한다. 하위 경로는 신경회로를 이용하는 반면, 상위 경로는 뇌의 전전두엽 피질로 외부의 지각을 전달한다. 이 두 경로는 매우 다른 속도로 정보를 기록한다. 하위 경로는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신속하다. 상위 경로는 느린 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 하위 경로가 이미 반응을 마친 상태에서 상위 경로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반응의 결과를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이다. 과학 추리 작가인 로버트 하인라인은 이를 두고 비꼬듯 말한 바 있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

[나]

“이것은 새로운 원리이자 발견이지, 위대한 발견이야.”
그 신사는 말하였다.
“자, 내가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지. 방에 카펫을 깔다고 해 보자. 너희들 같으면 꽃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펫을 사용하겠느냐”
이 신사분에게는 언제나 '아니요'가 정답이라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알아차린지라, 아이들은 큰 목소리로 입을 모아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뒤떨어진 아이 몇 명만 “예”라고 대답했는데, 그 중 한 명은 시시 주프였다.
“20번 여학생.”
신사는 모든 걸 다 안다는 듯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시시를 불렀다. 시시는 얼굴을 붉히

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너는 네 방에 꽃 그림이 그려진 카펫을 깔겠다는 거로구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죄송하지만 어르신, 저는 꽃을 아주 좋아해요.”

소녀는 답했다.

“그래, 너는 꽃을 좋아해서 그 위에 식탁과 의자도 올려놓고, 사람들이 무거운 신발을 신고 그 위를 걸어 다니도록 놓아두겠느냐”

“그것 때문에 꽃들이 다치는 않으니까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어르신, 그 꽃들은 뭉개지거나 시들지도 않을 거예요. 그 꽃은 아주 예쁘고 보기 좋은 것을 그려 놓은 그림이니까요. 제가 상상하기에는…….”

“이런, 이런, 이런, 하지만 너는 상상을 해서는 안 된다!”

신사는 자기가 그렇게나 말하고자 했던 결론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거야. 너는 절대로 상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신사 곁에 서 있던 토마스 그레드그라인드 씨도 심각하게 말을 받았다.

“상상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시실리아 주프.”

“사실, 사실, 사실만!”

신사는 소리쳤다.

“사실, 사실, 사실만!”하고 토마스 그레드그라인드 씨도 따라했다.

[풀이 과정]

1. 비판의 대상 찾기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소녀’와 ‘신사’의 입장을 평가하십시오.
->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1) 예상되는 결과	
2) 시의 적절성	
3) 세분화	
4) 구체화	
5) 반례 찾기	
6) 범위	

3. 비판의 구체화

4. 답안작성하기

혼자서 해결하기 - 예시 답안

1. 비판의 대상 찾기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소녀’와 ‘신사’의 입장을 평가하시오.
 -> 제시문 [나]가 비판의 대상인 것은 확실하나 세부적으로 ‘소녀’가 비판의 대상인지, ‘신사’가 비판의 대상인지 아니면 ‘소녀’와 ‘신사’모두가 비판의 대상인지를 탐구해보아야 한다. [가]의 관점은 상위경로인 이성과 하위경로인 감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상위경로인 이성만을 중시하는 ‘신사’와 하위경로인 감정에 치우친 ‘소녀’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 된다.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1) 예상되는 결과	이성만을 중시하여 인간이 가진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만을 중시하여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등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 시의 적절성	문제되지 않음
3) 세분화	상대방의 주장이 아니라 태도를 비판하는 것. 제시문 내에서는 이성을 중시하는 신사와 감성에 치우친 소녀로 나눌 수 있음.
4) 구체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성만을 따른다면 인간성이 상실될 수 있으며, 반대로 감정에만 치우친다면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5) 반례 찾기	[가]의 상위경로와 하위경로의 조화
6) 범위	이성적 태도, 감성적 태도가 그 범위가 넓지만 비판의 근거가 되는 입장도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에 범위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음.

3. 비판의 구체화

[가]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중시한다. 이성은 상위 경로를 통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작용하나 감성은 하위 경로를 통하여 본능에 의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작용한다. 이러한 둘의 관계는 상호보완적이며, 둘 다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나]에는 [가]의 관점과 상충되는 두 인물이 나온다. 먼저 신사는 철저히 ‘사실’만을 중시하는데, 이는 감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이성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인간의 감성을 나타내는 ‘꽃’과 ‘상상’을 중시하는 소녀는 감성에 치우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두 인물은 각각 이성과 감성만을 중시하는 인물이기에 상위 경로와 하위 경로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의 입장과는 상충된다.

4. 답안작성하기

[가]에서 저자는 ‘이성’의 역할에 대비하여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동안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상위 경로’라고 불리는 합리적이면서 신중한 전달과정은 중시되었지만, ‘하위 경로’인 감정적인 교류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위 경로가 근대적 합리주의를 대변하는 인간 이성의 상징이라면, 하위 경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는 교감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하위 경로는 상위 경로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들 두 가지가 적절하게 합쳐져서 인간 행동의 근원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이성과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근대의 사고방식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온 비합리적 요소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신사’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에서 신사는 표현이나 생각의 감성적 측면을 무시한 채 오로지 ‘사실’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강조한다. 소녀는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가진 효용을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신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단지 ‘상상’의 산물일 따름이다. 그래서 신사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냉철한 이성과 명확한 논리에 근거한 세계관을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신사의 입장은 단지 ‘상위 경로’에 불과하다.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상위 경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하지만 불완전한 형태로 사람들 사이를 연결하는 ‘하위 경로’는 오히려 소녀가 말하는 ‘꽃’에서 금방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의 관점에 따를 경우, 우리는 ‘신사’와 ‘소녀’의 입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고와 소통의 철학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2014 모의 우수답안)

혼자서 해결하기2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이화여대 2015 모의 인문1)

[다]

When you go to a forest, what do you see? A forest is a whole world of its own, full of many different living things, and these things are all connected to each other. For instance, insects eat the leaves of the trees and those insects become the main food of frogs. Frogs are eaten by snakes, which are in turn eaten by birds like eagles. Many animals feed on one another, forming different food chains, and these chains link together to form a "food web". Let's step back and think about how we live in our society. Without food grown by farmers, we cannot cook meals for us. We need bus drivers to go to school. How about scientists and engineers? If it were not for their contribution, we would not be able to watch television or use our computers. Like this, all of us need one another, forming various help chains. These chains link together to form a "help web". Let us look further into the world. Can we survive if we cannot import what we need from other countries? If Korea could not import oil from countries like Saudi Arabia, we would not be able to drive our cars. Besides, most of our industrial activities would be forced to stop. In turn, we export our products to other countries. For instance, Saudi Arabia relies on Korea for products such as cell phones or televisions. These simple examples show us that the world is a complete "trade web" system with a lot of trade chains among many countries. Forests, our society, and the world are all places of give and take. At the same time, the living things in all these places are living and should live in balance and harmony. What happens if there are too many insects or too few frogs in forests? What happens if we all want to be scientists and there are no farmers in our society? What happens if we cannot import oil from other countries? All these cases prove that we need each other to survive.

[라]

19세기 말에 빌프레도 파레토는 자연과 경제의 일부 영역에서 정규 분포 대신에 독특한 형태의 분포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정원을 가꾸며 80%의 콩이 20%의 콩 깻지에서 생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경제에서 소득의 분포 역시 전체의 약 80%가 인구의 20%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파레토의 발견 이후 1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주변에 그대로 존재한다. 이후의 학자들은 파레토의 경험적 저작들을 연구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80/20 법칙'이라고 불렀다.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같은 법칙이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에서도 목격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에는 왜 '80/20 법칙'과 같은 현상이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네트워크의 성장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네트워크의 성장은 하나의 노드

(node)*가 다른 노드와 링크(link), 즉 연결망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뒤늦게 네트워크에 포함된 노드는 다른 노드들에 연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지만, 초기에 포함된 노드는 그 이후에 포함된 노드들과 연결될 기회가 훨씬 많다. 따라서 네트워크 성장의 원리는 진입 순서가 빠른 노드에게 확실한 이점을 주면서 그들이 연결망을 과도하게 장악하도록 한다. 이같은 법칙이 생겨나는 두 번째 원인으로 연결의 선호도를 들 수 있다. 새롭게 네트워크에 진입한 노드들은 대체로 기존의 노드에 연결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기존에 연결망이 풍부한 노드들은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연결망이 더욱 확대된다. 이러한 연결의 선호도로 인해 네트워크 내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 노드(node): 연결망의 접속점.

[풀이 과정]

1. 비판의 대상 찾기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1) 예상되는 결과	
2) 시의 적절성	
3) 세분화	
4) 구체화	
5) 반례 찾기	
6) 범위	

3. 비판의 구체화

4. 답안작성하기

혼자서 해결하기2 - 예시 답안

1. 비판의 대상 찾기

제시문 [다]를 요약하고, 제시문 [라]의 관점에서 [다]의 내용을 비판하시오.
 -> [라]의 관점은 갈등론적 입장으로 기득권이 망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 반면에, [다]는 자연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모두 일종의 망 조직을 형성하며 그 구성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의 내용이 비판의 대상이다.

2. 비판의 기준 중 적절한 것 고르기

1) 예상되는 결과	조화론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기득권의 지배원리에 포섭되어 사회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시의 적절성	문제없음.
3) 세분화	주된 논지인 망에 대한 낙관론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에 세분화의 필요성은 크게 없음.
4) 구체화	기득권을 가진 노드들의 지배원리와 망 내부의 경쟁, 불평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5) 반례 찾기	[라]의 파레토 법칙
6) 범위	사회전체를 바라보는 견해의 차이기에 범위에는 큰 문제가 없음.

3. 비판의 구체화

[다]는 자연과 사회, 그리고 세계가 모두 일종의 망을 형성하여 서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며 상부상조한다고 보는 낙관론적, 조화론적 입장이다. 그러나 [라]에 의하면 이 입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라]는 조화보다는 갈등에 주목하여 망은 경쟁과 불평등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다]의 내용이 기득권을 가진 망들의 지배원리를 옹호하는 견해라고 비판이 가능하다.

4. 답안작성하기

제시문 [다]는 자연, 인간 사회, 그리고 더 넓은 세계에 존재하는 망(web)을 예로 들며 이 세상이 모두 이런 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숲에는 동식물들이 서로 먹이사슬을 형성하는 ‘먹이 망(food web)’이 있고, 인간 사회에는 서로간의 ‘도움 망(help web)’, 그리고 세계에는 각국 간의 ‘무역 망(trade web)’이 있다. 이러한 망은 우리가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입증하기에 이 같은 망을 조화롭게 유지하며 상호공존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역시 자연과 경제의 영역에 존재하는 연결망을 칭한다. 그러나 [라]에서 이 같은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와는 대조적으로, 네트워크에는 ‘80/20의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불평등한 힘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같은 불평등 관계는 네트워크의 성장의 원리와 그 안에서의 연결의 선호도에 의해 네트워크에 먼저 진입한 노드들이 결국은 나중에 들어온 노드들보다 더 많은 성장의 기회를 확보하여 불균형한 세력의 확장을 이루면서 생겨난다. 이러한 [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이 같은 망 또는 네트워크에서의 공존 체제가 균형과 조화 속에 유지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다]의 시각은 과도하게 낙관적이다. [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노드들 사이의 우열이 생겨나며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데, [다]는 이를 무시한 채 세상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공존 관계를 형성한다는 한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뿐이다. 네트워크 안에서의 경쟁이나 불평등, 불균형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다]의 내용은 네트워크를 단편적, 피상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5 모의 우수답안)